



긴급 생필품 지원... 남원시, '그냥드림' 운영

남원시는 지난 7일부터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식료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긴급 생필품 지원사업인 '그냥드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당장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이웃들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시 사회복지협의회 기초푸드뱅크(요천로 1531)에 마련된 전용 공간에서 매주 화, 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생필품을 겪는 시민이라면 생필품과 먹거리 꾸러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지원 규모는 30가구로 이용 절차도 간소화해 첫 방문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즉시 물품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2회차와 3회차 방문 시에는 복지 상담 진행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또는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 긴급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 등 공적 복지서비스나 민간 지원을 추가로 연계할 예정이다. 남원시 박생희 희망복지지원팀장은 "배고픔이라는 절박한 상황에 부딪친 시민들이 언제든지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그냥드림 사업이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진장 농어촌공, 물관리 운영대의원 회의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14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정수군, 진안군, 무주군 관내 운영대의원 11명과 지사 물관리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운영대의원 회의를 개최했다. 운영대의원회는 공사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시키고 공사의 율리 조적으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농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회의를 진행했으며, 지사 주요 현안과 2026년도 중점 추진 업무를 공유하고, 지역 농어촌 발전을 위한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진장지사 물관리 중점 추진업무는 △급수배수 서비스 개선 △농경지 침수방지 제도 개선 △사전 예방적 시설물관리 강화 △홍수기 저수지 수위관리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력 향상 △AI기반 스마트 물관리 실현 △농어촌 신재생 에너지사업 추진 등 수자원관리부진이 보고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농어촌 현장의 문제는 지자체와 공사 주민이 함께 풀어야 한다며 상생 협력의 중요성과,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라른 슬로진 아래 지역 맞춤형 발전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 인월면 지사시험, 착한가게 현판식

남원시 인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월 12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산골정육식당(대표 김영순), (주)케이에스패키지(대표 이광식)업체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이날 현판식을 가진 김영순 대표와 이광식 대표는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참여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중신 면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직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소방 '전국 소방기술 최정상'

제39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서 19개 시도 소방본부 가운데 '종합 1위'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전국 소방기술의 최정상에 올랐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제39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우승기를 들어 올렸다고 14일 밝혔다.



은 성과다. 현장 대응의 기본이 되는 화재진압 전술부터 구조대원의 팀 단위 구조능력, 구급대원의 전문 처치능력,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역량까지 소방업무 전반의 균형 잡힌 실력이 요구된다.

이번 종합우승은 전북 소방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정상에 오른 기록적인 성과로, 전북소방이 명실상부한 전국 최강 소방의 자리에 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화재진압, 구조, 구급, 화재조사 등 소방 현장의 핵심 역량을 겨루는 전국 단위 무대에서 전북 소방의 실전 대응 능력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입증한 결과다.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필요한 실전 전술과 전문 기술을 겨루는 소방 분야 최고 권위의 경연대회다. 올해 대회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충남 공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렸으며, 전국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응급구조학과 학생 등 5천여 명이 참가했다. 전북소방은 이번 대회에 소방공무원 35명, 의용소방대 등 일반인 15명 등 모두 50명의 선수단을 꾸려 12개 종목에 출전했다. 선수단은 화재진출, 응급구조전술, 구급전술, 화재조사, 최강소방관, 구급술기, 신속구조팀, 드론경진대회, 의용소방대, 대학 응급구조학과 경연 등 분야별 경연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했다. 종합 1위는 단일 종목의 우수선수로 탈선하기 어려

분야의 선전이 아닌 조직 전체의 훈련 수준과 현장 대응 체계가 전국 무대에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지역별 치열한 선발 과정을 거쳐 출전해 어느 때보다 경쟁이 뜨거웠다. 실제 재난현장을 재현한 경연장에서 참가팀은 장비 운용 능력, 전술 수행 속도, 팀워크, 안전관리, 상황판단 능력까지 현장 대응의 모든 과정을 평가받으며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번 성과가 단순한 대회 수상을 넘어 도민 안전으로 이어지는 현장 경쟁력의 확인이라고 설명했다. 평소 반복훈련을 통해 대원 개개인의 기술을 높이고 팀 단위 전술훈련을 강화해 온 결과가 전국 최고 성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이번 종합우승은 대회에 출전한 선수단만의 성과가 아니라 현장에서 묵묵히 훈련하고 대응해 온 전북 소방 전체의 값진 결실"이라며, "전국 최고라는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성과를 도민 안전을 지키는 더 강한 현장 대응력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오만호기자

전주교도소·농협중앙회 전북본부,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영농철 인력난 해소 위해 완주 고추 농가 지원

전주교도소와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며 지역사회 상생과 나눔 실천에 힘을 보탰다. 전주교도소(소장 주정민)는 14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성훈)와 합동으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촌의 부담을 덜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전주교도소 직원과 모범 수형자, 교정위원, 농협 임직원 등 총 19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완주군 소양면 소재 고추 재배 농가를 방문해 주변 환경 정비와 고추 지대 설치 작업 등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수혜 농가 관계자는 "농번기에는 고령화로 인해 일손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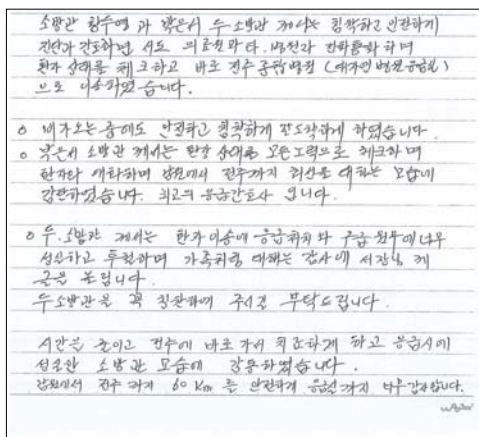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전주교도소와 농협 직원들이 자기 일처럼 나서 도와줘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정민 전주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고맙워요... 두 소방관 칭찬해주세요'

남원소방서 소방대원 향한 손편지 '화제'

남원소방서는 최근 현장에서 활동한 소방대원들을 향한 시민들의 감사 인사가 담긴 손편지와 칭찬 글이 잇따르고 있어 지역 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며칠 사이, 긴박한 구조 현장이나 구급 이송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민원인들이 직접 쓴 손편지가 도착, 편지에는 사고 당시 경황이 없던 자신들을 침착하게 안심시켜 주고, 가족처럼 정성껏 돌봐준 대원들에 대한 진심 어린 고마움이 정갈한 글씨체로 담겨 있었다. 편지에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눈앞이 캄캄했는데, 소방관 남들이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괜찮다고 말해 줄 때 정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대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이에 남원소방서는 시민으로부터 직접 칭찬 편지를 받은 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포상휴가'를 결정했다. 박은서 대원은 "시민분들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현장 활동으로 지친 대원들에게 무엇보다 큰 힘과 에너지가 된다"라고 전했다. 최승범 구급팀장은 "시민들께서 전해주시는 소중한 마음들



의 복지와 인권을 증진하며, 전국 한센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소통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남원시 관내 거주 한센인 등 총 39명이 참여, 보건소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개별 이동이 어려운 분들이 원활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동 등을 지원했다. 시 보건소는 한센병의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와 연계해 월 1회 이 동진료를 지속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한센인 정착마을 주민 참여 지원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어제(5월 14일), 전남 고흥군 국립소독병원에서 열린 '제23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에 관내 한센인 정착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지원했다. 2004년 시작해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한센인의 날'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센연맹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사회취약계층인 한센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



여경협 전북, 송전중고서 배식 봉사활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소정미)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에 나섰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13일 오전 전주시 송전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협회 나눔동아리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학생들의 점심 배식을 도우며 정성이 담긴 식사를 제공했다. 회원들은 직접 삼겹살을 굽고 배식 준비에 나서는데 등 조리 과정부터 배식 정리정돈까지 함께하며 학생들의 즐거운 점심시간을 지원했다. 특히 회원들은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봉사들이 이어졌으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이번 활동은 여성경제인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나눔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여 회원들도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책임 의식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소정미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학생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함께 봉사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여성경제인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장계농협, '고령조합원 생신상 차려드리기' 전개

장계농협(조합장 박정용), 농협장수군지부(지부장 정현주), 농가주부모임(연합회장 백영남)은 지난 13일 관내 천천한신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고령조합원 한 분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생신 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심전심(農心天心)' 즉 농업인의 마음을 하늘처럼 받든다는 농협의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농가주부모임에서 마련하였으며, 지난 12~13일 정성껏 준비한 떡, 모듬전, 미역국, 제철나물, 빵 등으로 생일상을 마련하였고, 한신마을 주민들과 함께 생신 축하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나누며 주인공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이영면 지사시험, 독거어르신 생신 축하 사업 추진

남원시 이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영주)는 지역 내 저소득 및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이영(young) 어르신 생신축하드려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장협의체는 가족의 돌봄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생신을 맞아 축하와 정서적 지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 사업을 마련하였으며, 맞춤형복지팀과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생일 케이크 및 담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어르신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생활 불편 사항을 살피는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영면 김심미 맞춤형복지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으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며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